



SUBLIMAGE
L'EXTRAIT DE CRÈME

CHANEL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크림
특별한 순간을 위한 바닐라 트리트먼트 크림

CHANEL

샤넬,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CHANEL.COM

Style

조선일보

APRIL 2018
vol.172



Cartier

SANTOS DE CARTIER COLLECTION



BVLGARI
ROMA

B.zero1
BVLGARI.COM

play it like Hermès





www.loropiana.com

 *Loro Piana*



16 20

22



표지에 등장한 것은 2018년 가을에다가 새롭게 선보이는 신투스 드 캐럴라에 워터, 스텔라본 모델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 메종의 가치를 보여준다. 1930년대 메종의 전통을 이어받아 탄생시킨 까르띠에 스텔라본 7는 2009년, 최초로 로마숫자를 적용한 신투스 100 스텔라본 워치의 출시와 함께 메종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아 더욱 가치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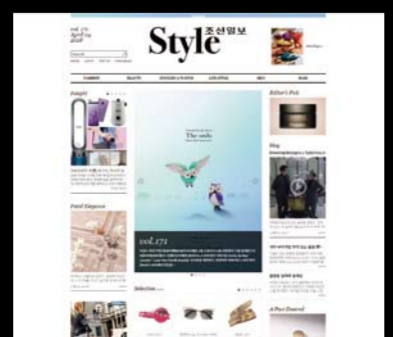
12

- 12 **SELECTION FOR HER** 당장이라도 몸을 일으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파릇파릇한 봄. 여성의 옷장에 봄의 활력을 불어넣을, 데일리 와 레저 룩을 오가는 스포티 무드 컬렉션.
- 14 **SELECTION FOR HIM** 이번 시즌 더욱 진화된 스포티즘 트렌드에 힘입어, 하이패션의 타치를 가미해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를 충족했다. 액티브한 남성들을 위한 셀렉션.
- 16 **ART BASEL IN HONG KONG. ART-FILLED CHANGES** 5년 전 스위스의 아트 페어 아트 바젤이 홍콩에 진출한 이래 이곳의 문화 예술 지형은 참 많이 달라졌다. 문화 자본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 지난 슈퍼 컬렉터, 세계적인 갤러리, 기업 후원까지 두루 갖춘 글로벌 아트 허브라는 위치는 시장 논리에 의해 정해져서 법. 올해도 8만 명 가까이 아트 바젤 홍콩을 찾았고,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한걸음 부러졌다. 주 전시장만이 아니라 홍콩의 상징부인 센트럴 지구에서 각종 '프리뷰' 행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발품'의 고통에 지프라이아도 타고 고층 건물 사이를 다닐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했던 아트 워크 분위기를 전한다.
- 18 **WRAP AROUND** 여성의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며 액세서리 효과를 내는 더블 스트랩의 활약은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브랜드의 DNA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더블 스트랩 워치의 매력.
- 20 **JUST ARRIVED**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으니 뉴 백을 탐색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기복까지 신뜻하게 하는 봄날의 컬러와 새로운 디테일로 매력을 한껏 어필할 2018 S/S 여성 뉴 백 컬렉션.
- 22 **SPRING LOVERS** 봄꽃처럼 화사하고 초여름처럼 싱그러운 뉴욕 퍼레이드.
- 30 **HAUTE SCENTS** 패션 하우스가 공동으로 출시하는 트렌디하고 시크한 향수가 당신의 감각을 일깨운다.
- 31 **BRILLIANT ETERNITY**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결정체인 진주와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다이아몬드가 만났다. 활짝 핀 꽃처럼 여성을 빛내줄 타사키의 펄 & 다이아몬드 컬렉션.
- 32 **WORK IT** 비즈니스맨의 패션에서는 셔츠와 타이의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컬러와 패턴, 디자인, 소재의 공명이 남성의 품격과 감각적인 취향을 완성해주기 때문. 거기에 컷츠 링크까지 더해지면 특유의 여유와 자신감을 부여해줄 것이다. 남성의 V존을 위한 셔츠와 타이의 하모니.
- 33 **MODERN LUXURY** 우아한 이탈리아 감성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가 지난 4월 6일, 갤러리아백 화점 EAST 2층에 부티크를 리뉴얼 오픈했다. 이를 기념해 브랜드의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오 필리피 코체타(Mario Filippi Cocchetta)가 직접 방문해, 〈스타일 조선평보〉와 함께 파비아나 필리피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34 **EDITOR'S PICK** 싱그러운 컬러와 향을 담은, 〈스타일 조선평보〉가 선택한 스프링 뷰티 리스트.

Style 조선평보

Issue.172 April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경원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분해·제본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stylechosun.com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평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평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평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평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ambour Horizon
Your journey, connected.

LOUIS VUITTON

louisvuitton.com

Jewel DIAMONDS FOREVER

품 안에 지니고 있으면 언제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우부터 아래로) 귀족적인 상반을 표현한 플로르 드 로스 키 펜던트, 플라타늄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6백만 원대 **타파니**, 반짝이는 불꽃놀이의 흔적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스피리타 펜던트 1천여만 원대 **타사키**, 마카즈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만으로 하이 주얼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빅토리아 알테이아 링 브레이슬릿 6천만 원대 **타파니**,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불꽃을 넘치는 곳을 표현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2천여만 원대 **불가리아**, 아리아 진주와 다양한 세팅의 3캐럿 다이아몬드를 조합한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인 밸런스 다이아몬드 프리미어 네크리스 4천여만 원대 **타사키**, 에티어 **베아진**

Hot spot ROMANTIC PARADISE

꽃 피는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로맨틱'과 '샬렘'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 아닐까? 달콤한 사랑에 빠진 연인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봄날의 데이트 코스를 꿈꾼다면, 피라디이스 로망스 파크지를 추천한다. 피라디이스시티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복합 리조트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에 압도된다. 활기차고 아늑적인 경함으로 가득한 데이트를 원하는 연인과 돌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원하는 커플을 위한 두 가지 테마로 선보이는 이번 파크지 프로그램은 피라디이스시티에서 편안한 휴식은 물론 0헬리콥터 디너 코스와 심해인, 라이브 음악과 각태일 등 필수 데이트 요소만 모아 다채롭게 구성했다. 앞서 말한 활기찬 데이트를 원하는 커플에게는 '개주얼 초이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피라디이스시티의 상징적인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Rubik)'에서 연인들의 달콤 자수를 높여줄 시그니처 각태일을 맛보며 재즈, 팝, 디제잉 등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과 함께 돌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스위트 초이스'는 코너 스위트 객실 파크지로, 라운지 피라디이스에서 웰컴 드링크 2잔을 제공하며, 이탈리아 파인 다이닝 '라 스칼라(La Scala)'에서 토스카나 지방의 봄을 연상시키는 '고메 트래블링 토스카나'(Gourmet Travelling Toscana) 디너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최고급 샴페인 파티에 주에 라운지에 서 그랑뷰리 샴페인 1병을 제공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로맨틱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여기에 파크지 공통 혜택으로 뷔페 레스토랑 '온 더 플레이트(On The Plate)' 조식 2인, 수영장, 플레이스테이션 체험 존, 피트니스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 달콤한 무드에 정점을 찍어줄 객실 내 '로맨틱 플라워 박스'도 준비된다. 이번 파크지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인 2인 기준 '개주얼 초이스' 파크지는 34만원부터, '스위트 초이스' 프로그램은 67만원부터, 연인들의 로맨틱한 하루를 계획한다면 눈여겨볼 것. 문의 032-729-2000 **에티어 이지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불필요한 접촉이 필요 없는 '언택트(untact) 서비스' 시대의 무인 커피 전문점, 터치카페

모 브랜드는 카페 손님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 전택적인 서비스가 은근한 경쟁력으로 평가받았다. 그만큼 서비스업에서 편안함은 중요한 요소다. 물론 사람이 해주는 서비스가 편리할 때도 있지만, 간단한 영역에서만 번거롭고 눈치만 보일 수도 있다. 더욱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 지불해야 하는 가격대가 낮아진다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법하다. 실제로 요즘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면 되는 무인(無人) 시스템을 갖춘 점포가 여러 영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한다는 이른바 언택트(untact, 비대면) 서비스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우체국은 물론 심지어 편의점과 자유롭게 책을 읽다가 갈 수 있는 무인 서점까지 있다. 무인 커피 전문점도 빼놓을 수 없다.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터치카페'가 대표적인 언택트 매장이다. 번듯한 시의 터치스크린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45초 만에 나온다.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터치카페 관계자는 강조한다. 무인으로 운영해 인건비를 줄인 대신 '가성비' 높은, 유럽에서 수입한 원두를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해 여름 직영점인 화동점을 연 이래 이대점, 강남본점 등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고양 등 지방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 이후 매장에 따라서 새벽 1~2시까지 연다. 문의 1588-2946



Beauty EYE SPY

눈가를 촉촉하고 화사하게 가꾸는 것만으로도 인상을 훨씬 아려 보이게 할 수 있다. 그 만큼 피부 나이가 쉽게 드러나는 예민한 눈가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칙칙하고 피로한 눈가를 집중 케어해줄 럭셔리 아이크림 열선.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데오르메 AQMW 브라이트 아이 세럼**은 눈가 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아미노산을 함유해 생체 눈가 피부를 자극 없이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내장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더욱 탄력 있고 화사하게 가꿀 수 있다(15g 1만 원). **프라이드 크림 앙시엔트 수퍼림 아이 세럼**은 마.이.이.들 사이에서는 피부 양자(아.라. 불.불. 정.로.도. 효과)가 입증된 프레스큐인 앙시엔트 라인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아이 세럼. 체코 수도원에서 정성을 다한 모든 수작업으로 탄생하는 하이엔드 라인완게 향, 텍스처, 발림성, 효과까지 만족스럽다. 앙시엔트 라인의 뛰어난 피부 재생력을 고스란히 담았고, 눈가에 탄력다 생기를 더해줄 자귀나무 껍질 추출물과 열대야를 생분해 함유해 숙면을 취한 듯 촉촉하고 매끄러운 눈가를 선사한다(15ml 26만 원). **망명 알슬리 프레스스 셀 다이아몬드 로즈 아이크림**은 뛰어난 진정, 보습, 항산화 효과를 지닌 1백50개의 다이아몬드 로즈 꽃잎에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결합해 눈가의 칙칙함, 피부 처짐과 더불어 눈가에 생긴 깊은 주름까지 완화한다(20g 21만 원). **리프레이 에센스 오브 스킨 케어 아이 콤플렉스**는 아이크림 전과 사용하는 눈가 전용 에센스. 피부 자체의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탄력을 부여하는 생무라 콤플렉스와 진주인 캐비어 추출물이 핵심 성분으로, 한두 방울을 눈가에 바르거나 크림에 섞어 사용하면 잔주름과 부기가 즉각적으로 해소되는 등 보다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15ml 21만 2천 원). **샤넬 블루 피어 아이**는 전 세계에서 단 네 곳에 불과한 장수 자적인 블루존에서 비밀을 찾아 그 지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그린 커민, 올리브, 랜디스 유행나무 추출물을 엄선해 담은 아이 세럼. 눈가 부기, 다크서클 완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피부에 속 흡수되는 산뜻한 질감이 피부 주름 크림을 바른 듯 촉촉한 마무리감이던 톤보안(15ml 9만 9천 원). **에티어 권유진**

Exhibition 플랫폼을 개관 2주년 기념전, <성좌의 변증법: 소멸과 댄스플로어>展

장르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술이 점점 더 다원성을 품어가는 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단순한 장르 간 이종교배가 아니라 퍼포먼스, 설치, 음악, 연극, 멀티미디어, 그리고 새로운 예술 형식을 융합적으로 이루려는 개념인 다원 예술(Interdisciplinary art)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원 예술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아트 공간인 플랫폼 컬처포러의 아트 스텐트에서는 <성좌의 변증법: 소멸과 댄스플로어(Dialectic of the Stars: Extinction Dancefloor)>라는 제목의 다원 예술 전시를 선보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해외 작가 9인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국내 작가 4인이 참여해 이 시대의 실존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표하는 전시다.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표현 형식은 다채롭고, 역자로 뛰어나는 내러티브도 없지 않다. 이들의 시대적 감수성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인류의 자연 파괴, 부의 양극화 같은 현실로 갈수록 증폭되는 인간의 불안을 직시하고 그러한 자만을 미야비 초국가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민우 플랫폼컬처 관장은 '다원 예술 시대에 연동된 것처럼 대화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설명했다. 이라쉬 나카리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출품작 'City of Tales'와 최원준 작가의 나는 평양에서 온 오.가.원.다. 베니스 비엔날레 2015 스페인관에 선보인 페르 샬라르의 'Eziak 5, b의 발보나 작가의 피라디이스 시티'가 그렇다. 언뜻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체험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전시 개막일에 수십 명이 신체를 소진하도록 춤을 추는 콜라주 스텐트의 퍼포먼스 Dance Me to the End of Love를 선보인 건 좋은 선택이었다. 다들 신나게 즐기면서도 몸으로 체득되는 성찰이 따라온다. **에티어 고성현**



PIAGET

POSSESSION

Piaget.kr
+82 (0)2 778 2300



상큼한 컬러 포인트가 되어줄, 20시간 연속 재생 가능한 헤드셋 7만9천원 소니.

다양한 사이즈로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북을 컬러 헤드셋 2만9천원 에코노믹스.

백은 이 나비기를 가장한 디테일은 다인용 프로그 블루 블랙의 인텔리전스.

다이얼과 베젤, 나토 스트랩까지 올 화이트로 선보이는 블랑파인 다이얼 워치 1천1백만원대 블랑파인.

세련미와 우아함, 여성스러움과 세련미가 어우러진 이베르 아지엔.

백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용 모터보트의 키링 12만원 출라.

화려한 패턴을 선보이신상용인 블루 12만3천원 MSGM.

바스켓볼을 형상화한 미니 피우치 1백만원대 에트메스.

이런 활동 시 지갑 대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목걸이 카드 지갑 30만원대 발랑파인 by 루이.

모노그램 로고 패턴을 더해 레트로한 무드를 자아내는 벨트 백, 38x19cm, 1백80만원 루이 비통.

트래킹화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하이톱 스니커즈 가격 미정 구찌.

별 포인트의 피치 컬러 선글라스 25만8천원 베디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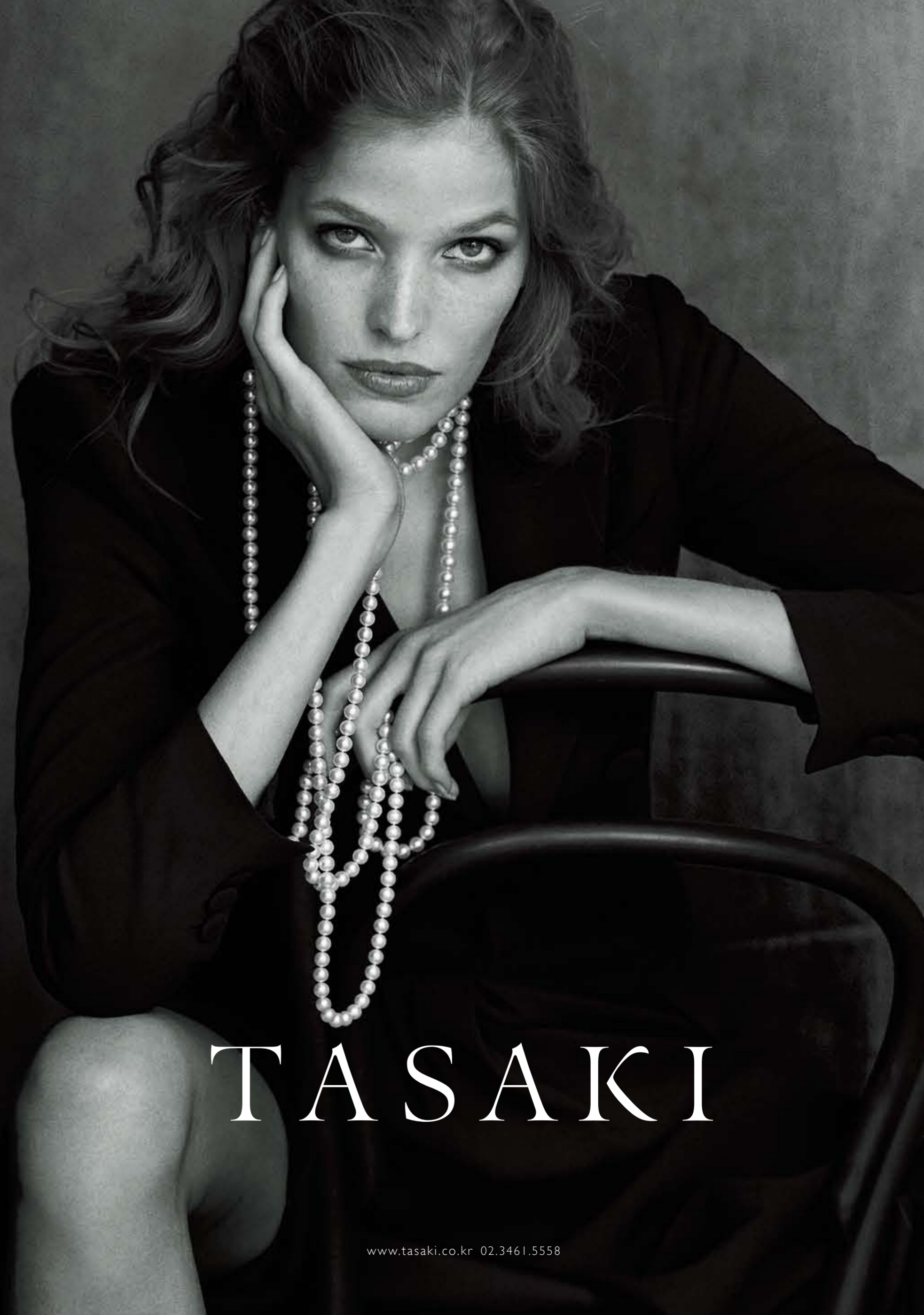
레인보우 아웃솔이 눈에 띄는 화이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스텔라 매카트니.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터보트의 백 스트랩 19만 5천원 MCM.

-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 토즈 02-3438-6008
- 소니 1588-0911
- 에트메스 02-542-6622
- 출라 02-759-0544
- MSGM 02-3449-5964
- 다들 02-3480-0104
- 미우미우 02-3218-5331
- 구찌 1577-1921
- 루이 비통 02-3432-1854
- 무이 02-3446-8074
- 프라다 02-3218-5331
- MCM 02-540-1404
- 바버리 080-700-8800
- 베디베로 02-3446-8552
- 발랑파인 02-2118-6474

로프 드레스스트라이프 포인트인 가벼운 나일론 소재의 오버사이즈 워드브레이크 재킷 1백15만원 바버리.

프라다의 상징적인 나일론 소재에 스티드 장식을 매치한 백팩, 29x31cm, 1백30만원대 프라다.



TASAKI

www.tasaki.co.kr 02.3461.5558



for him Selection

이번 시즌 더욱 진화된 스포티즘 트렌드에 힘입어, 하이패션의 터치를 가미해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를 충족했다. 액티비티한 남성을 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모자 뒤에 고글 디테일을 더해 항공 모자를 연상시키는 캡 10만원대 **씨피컴퍼니**.



캐주얼한 디자인의 벨크로 스트랩 스니커즈 90만원대 **프리다**.



화려한 패턴과 클래식한 컬러를 조화 시켜 90% 울로 제작된 캐주얼 스카프 10만원대 **프리다**.



내반바위 (베이지) 투톤 컬러 캔버스 '플러' 컬러 매칭 모자 35만원 **동용리본**.



진공 무도 스텔라 로고, 세미 매트 블랙 케이스 10만원대 **리우드 by 본디**.



신모 박기 편한 솔링은 스타일의 스파이츠 80만원대 **실버트레 매카기모**.



전통 어깨에 매는 크로스 백처럼 스포티한 스타일은 이니 베어. 21x34.5cm, 80만원 **헤르만**.

AERBIA는 양면형 이스트론트 디자인. 김모서, 에티터 어퍼면



중이 같은 독특한 질감의 광택 있는 소재로 제작한 모던 스타일 재킷 1985만원 **버버리**.



스포츠 트렌치코트에도 데님 재킷과도 두루 잘 어울릴 미니 크로스백, 24x7cm, 1985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 Z 제너 02-755-0287
- 포츠 1961 02-3438-6295
- 프리다 02-3218-5331
- 분더삼 02-3444-3300
- 토즈 02-3438-6008
- 몽클레르 02-514-0900
- 버버리 080-700-8800
- 오메가 02-511-5797
- 오프화이트 02-6905-3463
-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3
- 실버트레 매카기모 02-3430-7854
- 하트만 02-3448-5914
- 씨피컴퍼니 02-3446-9949
-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Brooks Brothers

TWO HUNDRED YEARS of AMERICAN STYLE

롯데 본점 5F | 02.772.3456 롯데 잠실점 5F | 02.2143.7682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현대 대구점 2F | 053.245.2270 신세계 센텀점 5F | 051.745.2855 스타필드 하남 2F | 031.8072.8340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B1F | 02.2052.6337

BROOKSBROTHERS.CO.KR



Art Basel in Hong Kong

art-filled Changes

5년 전 스위스의 아트 페어 아트 바젤이 홍콩에 진출한 이래 이곳의 문화 예술 지형은 참 많이 달라졌다. 문화 자본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슈퍼 갤러리, 세계적인 갤러리, 기업 후원까지 두루 갖춘 '글로벌 아트 허브'라는 위치는 시장 논리에 의해 정해지는 법. 올해도 8만 명 가까이 아트 바젤 홍콩을 찾았고,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한결 풍부해졌다. 주 전시장만이 아니라 홍콩의 심장부인 센트럴 지구에서 각종 '프리뷰' 행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발품의 고통'에 지프라인이라도 타고 고층 건물 사이를 다닐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했던 '아트 워크' 분위기를 전한다.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홍콩은 '아트라는 키워드'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명실공히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장터로 위상을 단단히 굳힌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in Hong Kong)이 개최되는 기간(3월 29~31일)을 끼고 있는 '아트 주간'이었다. 글로벌 도시의 매머드급 행사가 으레 그렇듯이 파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법. 인구밀도 높고 마천루 많기로 유명한 도시답게 뻘뻘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에 입주한 주요 갤러리들은 대부분 월요일인 26일에 앞다투어 오프닝 파티를 열었고, 허버프린트의 천막을 무대로 하는 아트 바젤 홍콩의 위성 페어 아트 센트럴(Art Central)도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전야제'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다음 날인 27일은 아트 바젤 홍콩의 VIP 오프닝이라 대부분의 전시 공간이 활짝 문을 열었다. 또 이 기간에는 문화 예술 마케팅에 남달리 공들이는 '아트 친화적' 명품 브랜드들이 화려하게 펼치는 부대 행사도 심심찮게 맞닥뜨릴 수 있다. 우아하거나 강렬하게 꾸민 전시장, 그리고 그 멋진 공간을 채운 각양각색의 미술품과 럭셔리 콘텐츠 못지않게 눈길에 가는 건 역시 '사람'이다. 멋쟁이 컬렉터와 미술계 인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오니 그럴 수밖에. 특히 세련된 옷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즐비한 건물의 계단을 날렵하게 오가면서 층층이 자리한 전시장을 바깥 둘러보는 풍경은 홍콩이 아니라면 흔히 접하기 힘든 흥미로운 볼거리다. 물론 진정한 주인공은 당연히 '아티스트'다. 자신의 이름을 건 전시를 하는 아티스트만큼 설레고 긴장될 수는 없을 터. 아트 바젤 전시장이든 홍콩 곳곳에 있는 갤러리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작가와 그 창조적 영혼을 사랑하는 컬렉터의 조우는 작품 감상과는 또 다른 '체험'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보고, 느끼고, 만나고, 토론하는 체험 경제의 장

아트 바젤 개최 기간에 홍콩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만나고, 토론하는 체험 경제의 진수를 뽐내는 장이 된다. 위성 페어와 특별전 등 온갖 '장외' 행사를 차치하고 메인 행사인 아트 바젤 홍콩만 놓고 봐도 엄청난 32개국 2백48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메인 세션인 '갤러리즈만이 아니라 개인 작가와 미술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인사이트와 캐비닛',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디스커버리즈', 대형 조각과 설치작업을 선보이는 '엔카운터스' 등으로 나뉘어 수준 높은 다양성을 즐길 수 있다. 첫날 한화 3백70억원에 팔린 알렉스 쿡 같은 20세기 거장의 작품('Untitled XII', 1975)부터 프랭크 발터(Frank Walter)처럼 생전에 전시를 한번도 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조명받은 작가의 전시(캐비닛)에 출품까지 말이다. 올해는 특히 인도와 중국의 차세대 갤러리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이다



(한국 작가들의 다채로운 활약상도 눈에 띄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인도 기사는 "인도 갤러리들이 예년에 비해 더 많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미술과 좀 친숙하다면 각각의 갤러리에서 나올 '목욕'이 제법 뻘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의 시선과 발길을 가장 많이 잡아끄는 섹션은 아무래도 '스케일과 '참신함'을 두루 갖춘 '엔카운터스'다. 세계적인 작가 수보드 굽타(Subodh Gupta)가 인도인의 도시락통과 냄비를 활용해 만든 설치물 'Start, Stop'(아라리오 갤러리), 커다란 북들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칠레 작가 이반 나바로(Iván Navarro)의 신작 '컴프레션(Compression, 폴 카스민 갤러리), 식기를 거대하게 확대한 무대를 선보인 중국 작가 저우위청(Chou Yu-Cheng)의 퍼포먼스 등이 12개 프로젝트가 공간을 수놓았다. 이 중 필릭스는 하얀 천을 활용해 공기의 환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자 했다는 일본 작가 오마키 신지(Shinji Ohmaki)의 작품 'Liminal Air Space-Time'(마인드셋 아트 센터)이 카메라 렌즈에 가장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 싶다. 운 좋으면 스타 작가들을 뚫소 접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를테면 홍콩 컨벤션 센터의 아트 바젤 홍콩 전시장이나 주요 갤러리를 바지런히 다니다 보면 정판즈, 장샤오강 등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는 물론이요 미술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자 스타 작가 제프 쿤스(Jeff Koons)가 보이그(신작 '블루버드 플랜터'가 전시된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부스에 나타

난 그는 예의 폭발적인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영국의 저명한 조각가 앤터니 고펠리(Antony Gormley)와 한국이 낳은 거장 아우환이 반갑게 담소를 나누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가 하면, 삼성미술관 리움 개인전으로 우리나라 팬도 꽤 많은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이 '아트는 순수한 감상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찬반 진영으로 나뉘 버리는 설전(CNN 스타일이 진행하는 'Intelligence Squared'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다.

홍콩을 새로운 영감으로 수놓은 아트 호텔아트 빌딩

올해 아트 바젤 홍콩의 '장외 하이라이트'는 단연 센트럴 지구에 새롭게 들어선 에이치 퀸스(H Queen's) 빌딩이었다. 홍콩 최초의 아트 특화 빌딩이라는 수식어를 단 이 건물에는 하우스 앤드 워스(Hauser & Wirth), 페이스(Pace),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 등 그야말로 쟁쟁한 갤러리들이 들어서 있는데, 오프닝 당일엔 줄을 서서 관람할 정도로 북적거렸다. 하우스 앤드 워스에서는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작가인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의 신작 시리즈, 페이스에서는 일본 팝아트 작가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나라 요시모토(Yoshimoto Nara)의 조각 작품 등을 선보였고, 필릭스 갤러리에서는 이탈리아 작가 아르칸젤로 사소리노(Arcangelo Sassolino)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에서는 독특한 감성의 사진으로 유명한 볼프강 틸만(Wolfgang Tillmans) 전시가 각각 열렸다. 1층에서는 미국의 개념 미술가 크리스토퍼 울(Christopher Wool) 작품을 다수 소장한 힐 파운데이션이 작가의 특별전을 열었다. 또 이 건물 11층에는 우리나라 대표 경제 회사 서울옥션의 상설 전시장 SA+도 있는데, 개관전 (UFAN X KUSAMA)에 이어 첫 경매를 실시해 높은 낙찰률(82%)과 더불어 시서화 '항아리'와 시로 김환기의 구상화 기록(약 40억원)을 새로 쓰기도 했다. 아트 전문 빌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술품이 곳곳에 빛을 발하고 있는 아름다운 호텔 더 머레이(The Murray Hong Kong a Niccolo)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아트 바젤 홍콩을 찾은 VIP 상당수가 머문 숙소이기도 한 이 호텔은 유서 깊은 행정부 건물을 영국 건축 스튜디오 포스터+파트너스(Foster+Partners)가 재디자인을 맡아 지난 2월 영업을 시작했는데, 박진기 작가의 설치 작품 두 점을 비롯해 하우메 플렌자(Jaume Plensa), 자하 하디드(Zaha Hadid) 같은 걸출한 작가들의 작품을 건물 안팎에서 볼 수 있다. 올봄 홍콩에는 독일

문화원 괴테 하우스가 문을 열기도 했는데, 매력적인 음악성과 현대적인 율동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회화 세계를 지닌 독일 작가 다비트 슈넬(David Schnell)의 작품이 공간을 채웠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문화 예술 특구와 조각 공원

미래의 랜드마크로, 홍콩 행정부 차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주룽 문화 지구(西九文化區·WKCD)도 빼놓을 수 없다. 구룡반도 침사추이에서 가까운 이곳에는 미술관, 콘서트홀, 대극장,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예정인데, 최고 기대주는 거의 '국보급'이라고 홍보하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미술관 M+. 이제는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 듀오 헤어초크 앤드 드 뮌론(Herzog & de Meuron)이 설계를 맡은 M+의 파사드를 일부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설 작업이 꽤 진행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는 M+파빌리온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 작가로 홍콩의 별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삼손 영(Samson Young)의 순회전 <Songs for Disaster Relief>가 낙점됐는데, 작가의 고향 땅에서 열린 전시여시일까? 복고 음악과 디지털, 실내 디자인이 묘한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웃음을 던져주기도 하는 이 전시는 베니스와는 한결 다른 정취를 뽐내주는 것 같았다. 향구도사다운 매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소는 홍콩 최초의 국제 조각 공원이라는 허버 아츠 스킵퍼치 파크(Harbour Arts Sculpture Park).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갤러리들이 주로 참여하는 아트 페어인 아트 센트럴이 자리 잡은 천막 전시장 옆에 있는데, 조각 사 이로 유유자적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아트 바젤 기간에는 그 유명한 구시마 야요이의 '호박'을 비롯해 앤터니 고펠리, 제니 홀저 등 명성 높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또 한국 작가 김홍석의 '몸 같은 형태(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은 쓰레기 봉투가 개나 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는 데서 착안한 풍자적 작품)도 볼 수 있었다. 한때는 '문화의 사막'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홍콩이지만, 이제는 도시 곳곳에 문화 예술 공간과 콘텐츠가 쌓이고 있으니,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이 홍콩으로 간 이 유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IS** 글 곽성연(홍콩 현지 취재)



1 지난 3월 말 홍콩 컨벤션 센터(KCEC)에서 열린 아트 바젤 홍콩의 '엔카운터스' 섹터에 출품된 일본 작가 오마키 신지의 회화작 'The Liminal Air Space-Time'(2018, Mind Set Art Center), 2 아트 바젤 홍콩 '인사이트' 섹터에 이강소 작가를 소개한 우순갤러리, 3 아트 바젤 홍콩에 참여한 셴 켈리(Sean Kelly) 갤러리 부스 풍경. 사진 제공 아트 바젤 홍콩 4 아트 바젤 홍콩 2018의 VIP 로비에서 선보인 스위스 명품 브랜드 오메가 파페(Audemars Piguet) 리운지, 뉴욕에서 활동하는 세바스찬 에라주리(Sebastian Errazuriz)가 3년째 장인들의 시계 제작에서 받은 영감을 살린 디자인을 맡았다. Courtesy of Artist and Audemars Piguet 5 박진기 작가의 설치 작품이 걸려 있는 홍콩의 더 머레이 호텔 1층 로비, 6 새로운 아트 빌딩으로 떠오른 에이치 퀸스(H Queen's)에 입주한 페이스 갤러리의 나라 요시모토 전시, 7 에이치 퀸스 빌딩 랜딩 이미지, 8 홍콩에 새로 생긴 허버 아츠 스킵퍼치 파크에 전시된 영국 작가 앤터니 고펠리의 작품, 9 센트럴 지구에 있는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고펠리의 최신작을 선보인 전시 (Rooting the Synapse), 오는 5월 19일까지. ©White Cube ©Kilminlee 10 에이치 퀸스에서 열린 미국의 저명한 개념 미술가 크리스토퍼 울 전시, 11 시주룽 문화 지구에 있는 M+ 파빌리온. 홍콩 작가 삼손 영의 순회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 M+ 제공 1, 2, 5, 6, 8, 10 Photo by SY KO



Wrap around

여성의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며 액세서리 효과를 내는 더블 스트랩의 활약은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브랜드의 DNA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더블 스트랩 워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예거 로콜트르 랑데부 데이트 워치 랑데부란 이름부터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이 시계는 출시 이후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성 기계의 왕이다. 랑데부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부드러운 곡선 케이스와 우아한 플로럴 숫자 인덱스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태를 자아낸다. 불과 아슬라는 상큼한 핑크색과 옐로 스트랩을 장착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9-5912 **티파니 아스트 웨스트 워치** 한눈에 봐도 깔끔한 라인과 직사각형 케이스가 눈에 띄는 이 워치는 1940년대에 출시한 티파니 미노디에르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세로형 다이얼을 가로형으로 과감하게 바꾼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성을 위한 지름 37x22mm 사이즈의 사랑스러운 핑크 다이얼로 선보여 더욱 매력적이다. 4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볼가리 세르펜티 트윈스트 유어 타임** 지대와 몸통, 영원을 상징하는 뱀을 모티브로 한, 볼가리의 아이코닉한 세르펜티 컬렉션. 고래이 선호하는 케이스와 다이얼뿐 아니라 원하는 컬러와 소재의 스트랩으로 구성하는 퍼스널 디자인이 가능하다. 올해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 트렌드에 맞춰 신비로운 색으로 매력적인 퍼플 컬러의 카프 가죽 스트랩 버전으로 선보인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사텔 프라미에르** 사텔 하우스의 DNA를 모두 담아낸, 우아함과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 사텔 N5 황수병의 마법과 파리 방돔 광장의 팔각형 구조를 모티브로 만든 팔각형 케이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2.55 백의 체인에서 착안한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다. 5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에르메스 엘리** 수많은 여성들의 로망을 품은 에르메스 엘리 백의 가장 상징적인 자물쇠 장식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엘리 워치. 엘리 백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시계 스트랩에 그대로 구현했으며, 자물쇠 모티브에 시계 다이얼을 장착했다. 패셔너블한 브레이슬릿으로도 손색없다. 3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자엔**



OBZÉÉ

OBZEE.COM
TEL. 1544-3966

(왼쪽부터 차례대로) **산티토레 페라기오 디프네 백** 앞면에 이그조틱 레더를 더한 반달형 보드에 페라기오를 상징하는 간키니 로고를 핸들로 재해석해 위트 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탈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이 있어 실용적이고, 내부에 포켓을 더해 수납도 용이하다. 23X29cm 2백29만원. 문의 02-3430-7854
볼가리 세르펜티 내온 백 내온시인 불빛을 연상시키는 필라플 스티드로 매력을 극대화한 체인 슬더 미니 백.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와 더불어 앞면엔 귀여운 뱀 일러스트를, 뒷면엔 FOREVER 문구를 스티드로 장식해 볼가리만의 개성을 한껏 드러냈다. 20X25cm 2백80만원. 문의 02-2056-0172
렌디 미니 파카부 백 펜디의 아이코닉 백인 파카부 백의 2018 S/S 신제품. 이번 시즌엔 핸들에 여성스러운 가죽 레이스업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핸들 장식과 가방 내부 컬러를 통일시킨 장도 메릭 포인트. 23X17cm 4백55만원. 문의 02-2056-9023



스타리야트 유환영
 시트 스템리야트 박우영
 아미르 박준우
 박지현 박정민(02-3449-3006)
 박지현 박정민



구찌 르벨 백 레트로 무드가 가득한 레드 컬러의 빅 백. 자연스럽고 거친 질감이 돋보이는 버펄로 가죽을 사용했으며 앞면엔 아이코닉한 GG 로고로, 뒷면엔 타이거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50X30cm 4백40만원. 문의 1577-1921



(왼쪽부터) **아이코닉 제이디 백** 파스텔 레이드를 연상시키는 우아하고 클래식한 트라페즈 실루엣이 돋보이는 토트백. 탈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을 구성해 보다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다. 26X22.5cm 2백35만원. 문의 02-546-7764
마이클코어스 놀라타 백 모던한 블랙 & 화이트 배색으로 미니 말한 룩에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미니 토트백. 21X17cm 65만원. 문의 02-546-6080

just Arrived

새로운 시즌이 왔으니 뉴 백을 탐색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기분까지 산뜻하게 하는 봄날의 컬러와 새로운 디테일로 매력을 한껏 어필할 2018 S/S 여성 뉴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토즈 테아 백** 올해 선보인 토즈의 뉴 컬렉션. 이번 시즌 다시 트렌드 전선에 합류한 빅 백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감성과 실용성이 돋보인다. 산뜻한 파스텔 옐로 컬러와 브랜딩 로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된 클로저, 지퍼 부분에 달린 말타컬러 프린지 태슬, 그리고 인장적인 더블 스트랩까지. 섬세하고 매력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 33X33cm 2백40만원. 문의 02-3438-6008
샤넬 기브라델 백 맥 맥 웨이팅 리스트가 생겨남 만큼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백백. 샤넬을 상징하는 체인 스트랩을 적용해 백팩이 아닌 여성스럽고 드러내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기브라델 백백은 유광과 무광 가죽 텍스처를 마치 그라데이션된 듯 연출한 것이 특징이고, 체인 스트랩 역시 한 줄에는 실버 컬러의 메달을, 다른 한 줄에는 골드 컬러의 메달을 사용한 것도 돋보인다. 23X27cm 4백만원대. 문의 080-200-2700
비오바오 이세이 미야게 바켓 백 인체적인 3D 세이프가 특징인 비오바오 백이 올해 처음으로 세로로 긴 백 스타일로 선보인다. 토트백으로 연출할 수 있는 핸들에 슬더 스트랩을 더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20X27cm 1백25만원. 문의 02-6905-3531



보테가 베네타 팔리오 나파 토트백 이탈리아 전통 경마인 팔리오(Palio) 깃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2018 S/S 뉴 백. 이번 시즌 키 컬러인 라일락, 캐머미일, 갈리아 등 낙관적이고 파스한 컬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원하는 미니셀을 더할 수 있는 퍼스날라이제이션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백을 완성할 수 있다. 37X24cm 6백77만원. 문의 02-3438-7682



(왼쪽부터) **자헨시 GV3 백** 하우스의 역사적 주소인 The Avenue George V, 3의 미니셀을 담은 미니 솔더백. 아코디언 구조로 이루어져 소지품이 많을 때는 수납공간을 넓힐 수 있다. 체인 장식과 마그네틱 메탈 잠금 버클이 멋스럽다. 15X11cm 2백만원대.
루이비통 시티 말 백 비즈-나스 우먼의 데일리 룩을 책임질 견고한 스몰 백 스타일의 토트백. 모노그램 캔버스에 송이자가 줄과 골드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26.5X20cm 3백75만원.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권유진

Spring Lovers

봄꽃처럼 화사하고 초여름처럼 싱그러운 뉴룩 퍼레이드. photographed by jung ji eun



트윈드 소재 재킷, 핑크 플라워 패턴 셔츠와 스카프, 사이하이 부츠, 드림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규피.



(위쪽부터) 니트 롱, 베이지 롱 슬릿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만스미라, 메시 소재 테일러드 재킷, 그린 칼라 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네젤도 제너꾸뛰르.

스웨이드 소재 주얼 장식 드레스
1천3백7만5천원, 아너로 입은
보다수트 2백18만원 **보테가**
베네타, 블랙 앵클부츠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주얼 디테일 초커
48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왼쪽부터) 니트 카디건 1백20만원대,
블루 스트라이프 집업 셔츠
가격 미정, 패턴 반소매 셔츠 90만원대,
벨트 50만원대 모두 **프라다**, 그레이
테일공드 팬츠 가격 미정 **버버리**,
레이스업 슈즈 91만원 **보테가 베네타**,
리틀 디테일 셔츠 가격 미정 **발렌티노**,
블루 와이드 팬츠, 리본 디테일 썸프스
모두 가격 미정 **버버리**, 주얼 드림
이어링 48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화이트 자수 장식 턱시도 재킷
가격 미정 **블랙핑크**가바나,
사스루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디올**, 버클 디테일
샌들 1백40만원대 **로자비비에**.



(왼쪽부터) 그린 컬러 니트 등,
아너로 착용한 화이트 슬리브리스 등,
체크 슬리브리스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스웨이드 코트,
네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휴고보스**,
버건디 슬리브리스 등 93만원, 블루 컬러
반소에 셔츠 65만원 모두 **디올**.



(왼쪽부터) 블랙 시스루 비즈 장식 탑,
블랙 비즈 장식 러플 스카르트 모두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골드 힐 1백30만원대 **로자비베**.
블랙 레더 재킷 7백99만원, 블루 패턴
반스메 셔츠 1백53만원, 화이트 팬츠
1백37만원, 블랙 벨트 73만5천원,
스니커즈 96만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플라워 패턴 슬리브리스
드레스 4백49만원 **렌디**.
주얼 장식 드롭 이어링 38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헤어 김유준
메이크업 이별
모델(케이틀라스) **김승현, 케빈**
어시스턴트 **문진호, 김원민**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구피 1577-1921
보태가 베네타 02-515-5840
루이비통 02-3432-1854
타니 by 마네타니 02-6905-3583
프라다 02-3218-5331
버버리 080-700-8800
발렌티노 02-2015-4653
렌디 02-2056-9022
믹스라라 02-3467-8326
에르메네집토 제나 구무르 02-3453-2287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미우미우 02-3218-5331
휴고보스 02-515-4088
디올 02-3480-0104
몰레방가버나 02-6905-3971
로자비베에 02-6905-3370



haute Scents

패션 하우스가 공들여 출시하는 트렌디하고 시크한 향수가 당신의 감각을 일깨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프라다 칸디 슈가 팝** 스프라클링하고 섬세한 느낌의 향수. 미우치아 프라다의 오랜 친구인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이 디자인한 바 루체 폰다 지오네 프라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수다. 세 가지 색상의 사보이노 가족을 모티브로 한 콜라주 컬러가 사랑스럽다. 50ml 13만2천원. 문의 02-3443-1805 **구찌 블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처음 선보이는 향수. 풍부한 화이트 플로럴에 꽃과 식물이 가득한 정원의 생동감을 담았다. 투베로즈와 제스민, 향수업계에서 희귀한 소재인 란군 크리피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레트로 무드의 패키지가 트렌디하다. 100ml 18만3천원. 문의 080-850-0708 **발렌시아가 파리 레디신 에르 오 드 퍼플** 물과 조개껍데기 속 진주의 영롱함을 표현한 보틀이 하이패션 브랜드의 기질을 실감하게 한다. 유자와 차조기, 고귀한 은방울꽃 향을 더해 진향이 섬세하다. 50ml 12만9천원. 문의 080-850-0708 **미우미우 로 로제** 은방울꽃과 카시스 꽃망울의 플로럴 향기를 담은 미우미우의 세 번째 향수. 사랑스러움과 통통 튀는 매력을 표현하는 브랜드답게 향기와 패키지가 디자인, 광고 캠페인 이미지까지 모두 생기가 넘친다. 자유로운 소녀들의 일탈과 도전, 반항과 즐거움을 담은 캠페인 영상은 미우미우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50ml 12만원. 문의 02-2143-7186 **루이 비통 르 주르 스페르** 1927년에 첫 향수를 선보인 이후 2016년에 7종의 향수를, 가장 최근에 동을 넉을 의미하는 르 주르 스페르 컬렉션을 출시했다. 수석 조향사 지르 카

발리에 벨루루가 가장 사랑하는 만다린 향과 중국의 제스민 삼백을 더해 편안하면서도 짜릿하고 신뜻한 향기를 완성했다. 그라스에서 태어나 다음 이어 조향업에 종사해온 조향사의 직통이기에 더욱 기대된다. 향수 보틀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크 뉴슨의 작품이다. 100ml 35만원. 문의 02-3432-1854 **알리아 오 드 퍼플 블랑 쉬** 보디컨서츠의 대가 알리아의 향수를 담은 시크한 향수. 최근 10 고르스 고모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고 있기에 전시 관람과 함께 향수를 테스트해보길 권한다. 머스크를 베이스로 이문드의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취를 담았다. 50ml 13만원. 문의 02-3018-1010 **발렌시아가 도나 로사 베르데** 발렌시아가 쿠튀르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패입 그린 컬러 워터는 신비로운 이탈리아 궁전 속 아름다움 여성을 표현한 프레시한 향기를 풍긴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스타드를 형상화한 보틀까지 브랜드의 기질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진저 향과 베르가모트, 섬세한 플로럴 향기가 어우러진다. 125ml 16만2천원. 문의 02-3443-1805 **에르메스 오 드 시트론 누와** 완성적인 가격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즐기고 싶다면 향수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 프랜시스 브랜디에기에 조향에 대한 노하우가 넘쳐난다. 에르메스 전속 조향사 크리스틴 나이젤이 다양한 시트러스 중 레몬을 중심으로 산뜻하지만 럭셔리하고 기품 있는 향수를 완성했다. 짙은 다크 블루 보틀이 반전 있는 향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 100ml 15만2천원. 문의 02-310-5174 에디터 **베이비**



기적의 빛, 사이트홀더가 완성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진주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보석이 또 있을까? 타사키는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언제나 여성의 사랑을 받는 다이아몬드 원석 구입과 자체 감정, 연마 과정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는 브랜드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SSS(De Beers Global Sightholder Sales)에서 직접 원석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홀더 자격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는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뛰어난 기업에만 부여된다. 그뿐 아니라 5캐럿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까다로운 자격이다. 현재 이 자격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 82개 사뿐이라는 사실에서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컬렉션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뿐만 아니다.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컨트롤하는데, 한 명의 전문가가 일관된 관리와 점검을 함으로써 최고의 원석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석에 걸맞은 완벽한 컷팅 기술과 더불어 타사키의 최종 목표이자 철학이기도 한 기적의 빛을 품은 최상급 다이아몬드 컬렉션이 비로소 완성된다. 모던한 디자인과 우아한 광채를 품은 타사키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중도의 미학을 지닌 여인에게 잘 어울리는 선택이다. 작은 차가 넘치도록 럭셔리한 브랜드는 물론처럼, 아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타사키 주얼리는 여성의 아름다운 기질을 드높이기에 충분하다.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치레 솔라티어 링과 함께 매치하면 더욱 아름다움 가득 링, 18K 화이트 골드 비에 6mm 아코아 진주, 0.57캐럿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일렬로 세팅한 발렌스 솔로 네크리스와 링, 12mm 남장진주와 0.57캐럿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발렌스 클러스 링 모두 **타사키**.

brilliant Eternity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결정체인 진주와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다이아몬드가 만났다. 활짝 핀 꽃처럼 여성을 빛내줄 타사키의 펄 & 다이아몬드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평범함을 거부하는 신비로운 결정체, 진주 요즘 워딩 트렌드를 보면 예비 신부들의 취향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특별하고 싶은 욕구가 크고 자기 표현에 거리낌이 없는 만큼 남들과 다른 것을 갈망한다. 타사키의 진주는 그런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반전 매력의 독보적이다. 2017년 9월에는 프라발 구렁(Prabal Gurung)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1954년 출한 타사키는 진주 양식과 산별, 가공, 디자인,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유일한 브랜드로, 자급률이 풍부한 일본 바다에 대규모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기에 제품에 대한 신뢰 또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울퉁, 곁을 앞두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워딩 주얼리를 원하거나, 데일리 룩에 포인트가 될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지닌 주얼리를 찾고 있다면, 개성 강한 당신과 닮았이 완벽한 균형을 이 타사키의 진주 컬렉션을 눈여겨보는 것이 어 지. 문의 02-310-1854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8.5mm 아코아 진주에 0.4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발렌스 다이아몬드 패베 펜던트, 5.5mm 아코아 진주와 0.16캐럿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발렌스 다이아몬드 패베 이어링, 8.0mm 아코아 진주와 0.92캐럿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발렌스 다이아몬드 패베 링 모두 **타사키**.





Ermenegildo Zegna
두 가지 이상의 컬러로 이루어진 타이를 선택했다면, 타이를 구성한 컬러 중 하나와 같은 컬러의 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중 밝은 컬러에 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진 속 특은 네이비 바탕에 핑크 컬러 포인트의 타이를 핑크 컬러 패턴의 셔츠와 매치해 화려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톤온톤 느낌을 지어낸다. 울 소재 패턴 셔츠 59만15천원, 울타일 패턴의 실크 타이 27만원, 로퓴 도금 메탈 소재 커프스 링크 37만원 모두 **에르메네제임도 제나**.



Tom Ford

화이트 셔츠에 솔리드 컬러 타이라는 고루한 법칙에서 벗어나보자. 클래식한 각자무늬 셔츠를 선택했다면, 과감한 비비드 컬러 타이를 선택해 센스 있는 스타일링에 도전해보길. 각자무늬 셔츠 70만원, 터웨이즈 컬러 타이 32만원 모두 **톰 포드**. 블루 커프스 링크 99만15천원 **카르메에**.

Work it

비즈니스맨의 패션에서는 셔츠와 타이의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컬러와 패턴, 디자인, 소재의 궁합이 남성의 품격과 감각적인 취향을 완성해주는 때문. 거기에 커프스 링크까지 더하면 특유의 여유와 자신감을 부여해줄 것이다. 남성의 V존을 위한 셔츠와 타이의 하모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anali

남성들이 화이트 셔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블루 셔츠. 패턴이 있는 셔츠라면 타이도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컬러가 주는 안정감 덕분에 패턴과 패턴이 더해져도 과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느낌을 지어낸다. 블루 코튼 셔츠 53만원, 플라워 포인트 타이 23만원 모두 **까날리**.



Brioni

본은론 공식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보색 대비 열은 그린 컬러 핑스트라이프 패턴 셔츠에 그린이나 닐로 컬러를 더하면 더욱 감각적인 조합을 완성할 수 있다. 핑스트라이프 셔츠 88만원, 패턴 타이 42만원 **브리오니**. 몽블랑 엠블럼 모티브의 오닉스 커프스 링크 55만원 **몽블랑**. **에디터 이자현**

톰 포드 02-6905-3534
에르메네제임도 제나 1566-7277
에르메네제임도 제나 02-518-0285
까날리 02-3467-9603
브리오니 02-516-9636
몽블랑 1670-4310



FABIANA FILIPPI

Modern luxury

우아한 이탈리아 감성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가 지난 4월 5일, 갤러리아백화점 EAST 2층에 파비아나 필리피 부티크를 리뉴얼 오픈했다. 이를 기념해 브랜드의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오 필리피 코세타(Mario Filippi Coccetta)가 직접 방한해, <스타일 조선일보>와 함께 파비아나 필리피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Made in Italy'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파비아나 필리피

패션에 문외한이라도 Made in Italy가 주는 신뢰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탈리아 원단의 뛰어난 품질은 함부로 모방할 수 없을 테니. 여기, 럭셔리한 감성을 기본으로 이탈리아 울브라에서 1백여 년간 핸드메이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파비아나 필리피의 모든 제품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리뉴얼 오픈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특유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와 나무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한 이 공간은 마치 자연의 럭셔리한 발장에 초대받은 듯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지어낸다. 이는 가장된 아름다움이 아닌 내추럴하며 세련된 감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파비아나 필리피가 추구하는 여성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매장에서는 파비아나 필리피 2018 S/S 컬렉션의 레드투웨어를 포함한 우아한 감성을 담은 특유의 시린 디테일로 장식한 액세서리 라인까지 모두 한정판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시즌 파비아나 필리피는 낭만적인 홀리데이를 즐기고 돌아온 여행자의 기억을 되살린다. 등대에서 바라본 노르웨이 로포텐(Lofoten)제도, 타라스 그늘 아래 햇살이 드리운 카스블랑카의 한낮 풍경, 숨은 보석 같은 그리스섬의 섬 잔디(Zante), 그리고 시막이 펼쳐지는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ch)의 새벽 등 여행에서 느낀 감성을 풍부하고 깊은 색감으로 풀어낸 것. 실제로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핑크 계열부터 태양의 열기 아래 반짝이는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샌드 컬러, 은은한 진주빛이 담긴 화이트로 이뤄진 컬러 팔레트가 펼쳐졌다. 매장 양쪽으로는 보헤미컬 기든 의 모란, 라일락, 목련 꽃잎과 조화를 이루는 인디고 블루, 스카이 블루 컬러, 그리고 아름다운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가리의 노을을 연상시키는 다스키 차콜 등 다양한 컬러들이 수놓여 있었다. 또 노대니즘(nomadism)을 테마로 라인과 모슬린, 캐시미어와 울, 시아한 망사 스타일의 가즈와 메시 소재 등 가벼운 무게감이 돋보이는 소재를 기반으로 한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주를 이룬다. 파비아나 필리피 특유의 비단질 디자인의 셔츠부터 몸에 흐르는 듯 유려한 핏의 슈트 등 한눈에 보아도 여유로운 우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섬세하면서도 편안한 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원한다면 파비아나 필리피의 새로운 부티크로 초대한다. 문의 02-6960-0843 **에디터 이자현**



interview with **Mario Filippi Coccetta**

01 이번 갤러리아백화점 파비아나 필리피 스토어의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와 리뉴얼 매장을 직접 살펴본 그 소감은? 아주 만족합니다. 사실 이번 갤러리아백화점에 리뉴얼 오픈한 파비아나 필리피 부티크는 전 세계 50번째 매장이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비아나 필리피 오피셜 인테리어 콘셉트로 새로운 요소를 더해보았어요. 바로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요제프 프랑크(Josef Frank)가 디자인한 조명을 설치한 것이지요.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작수입한 내추럴 대리석 바닥과 화이트 우드 몰딩 벽, 모던 아트 액자를 더해 아늑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누구든 파비아나 필리피 매장을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닌,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02** 파비아나 필리피 하면 우아한 이탈리아 감성과 품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 좀 더 모던하고 시린 컬렉션을 선보인다고요. 바로 파비아나 필리피의 다음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기존 고객층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영(young)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파비아나 필리피가 얼마와 딸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길 원하죠. 또 그 딸이 우리 브랜드의 소비자라 되기 위해선 고객 니다를 겨냥한 디자인과 소재 개발뿐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겠죠. **03** 바로 이러한 밀레니엄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전통적 럭셔리 하우스들이 떠나 할 것 없이 소셜 미디어에 뛰어들고 있다. 파비아나 필리피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알파벳(Alphabea)라는 스페셜 캠페인 라인을 소개했는데, 이는 바로 밀레니엄 세대가 활동하고 있는 SNS를 겨냥한, 그들을 타겟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파비아나 필리피의 상징적인 니트 스웨터에 알파벳 레터가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이는 여성이 어떠한 규칙이나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감정에 따라 개인적인 의미를 두 레터를 선택한다는 취지에서 #Beyourletter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04** 또 이번 F/W 컬렉션부터는 미니 홈 컬렉션 시리즈인 'My Private Life'를 전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럭셔리한 홀리데이까지 확장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첫 번째 이유는 파비아나 필리피가 단순히 S/S, F/W 시즌에만 제품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캠페인 형태로 고객들을 더 자주 만나기 위함이에요. 또 이번 홈 컬렉션 이름을 'My Private Life'라고 지은 이유는 여성들이 파비아나 필리피를 퍼블릭한 장소에서만 입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기를, 더욱 오래 파비아나 필리피와 함께하기를 바라서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테이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로로, 집에서도 우아하고 맛있는 여성을 위한 컬렉션입니다.



1, 5 지난 4월 6일, 갤러리아백화점 EAST 2층에 리뉴얼 오픈한 파비아나 필리피 매장. **2** 파비아나 필리피 2018 S/S 컬렉션 광고 비주얼. **3** 파비아나 필리피 CEO 마리오 필리피 코세타와 함께 포즈를 취한 모델 한혜진. **4**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링 선보인 배우 김남주. **6**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티브로 포인트를 준 리넨 실크 소재의 재킷과 와이드 팬츠를 매치한 이번 시즌 키룩, 몸에 흐르는 듯한 여유로운 실루엣이 돋보인다.



© sponsored by FABIANA FILIPPI

editor's Pick

싱그러운 컬러와 향을 담은, <스타일 조선일보>가 선정한 스프링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쿠션 골드 라벨 SPF 50/PA+++ 정교한 피운데이션으로 유명한 에스티 로더에서 프라이밍 라인으로 쿠션 팩트를 선보인다. 다양한 컬러로 출시해 컬러에 따라 선택할 정도로 다양한 컬러 라인을 갖추고 있다. 캐치러와 일차적이며 나 큰 데워질 날씨에 꼭 필요한 아이팩이 될 듯. 12g 6288천원. 문의 02-3440-2722. *by 에디터 배미진*

겐조 플라워바이엔조 르 쿠션 이젠 향수도 쿠션 팩트처럼 두드러지는 시대, 고제 향수를 다르게 패용 패드를 함께 구성해 언제 어디서 사용해도 간편적인 뷰티 라우팅을 뽐낼 수 있다. 촉촉한 질 향수의 향수를 파드에 묻혀 후 목 뒤와 데콜테, 팔과 손목 안쪽 등 평소 향수를 뿌리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14g 5만6천원. 문의 080-344-9500. *by 에디터 이지연*

슈에무라 루즈 인피니트 슈프림아이드 PK375 '시크 핑크'는 내내안으로 불리는, 세련되고 차분한 핑크 컬러의 립스틱, 보습력이 강하고 입의 싱그러움과 열대 리드 컬러감향까지 예뻐 매치된다. 살구향과 매화향 질감의 이쁜 여러 번 덧칠라도 각질이 부각되거나 뽀얗지 않아 만족스럽다. 톡톡 두드리듯 비브먼트 터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하기에도 좋다.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에어리 프렌드십 컬렉션 허비스카스 팜 피로리션 이국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비로운 열대 섬을 향으로 표현했다. 아자나무 잎의 싱그러움과 열대 섬의 따뜻한 이파리 향이 어우러진 향으로, 바르자마자 기분 좋은 향이 퍼지며, 아침에 샤워한 후 비린 향이 오후까지 꽤 오래 지속된다. 150ml 6288천원. 문의 02-3440-2722. *by 에디터 이지연*

프레쉬 슈가 레몬 하이드레이팅 탄발 프레쉬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슈가 랩밤에 레몬 과즙을 듬뿍 담아 상큼한 향과 맛을 선사하는 리피티드 에디션 랩밤. 기존 슈가 랩밤의 뛰어난 보습력과 촉촉한 텍스처에 싱그러운 레몬 향이 감돌아 상쾌한 느낌을 준다. 건조한 입술에 수시로 발라도 좋지만, 마스크처럼 듬뿍 바르고 20분 뒤 다음 날 아침 보습보들 메이크업이 입술을 감쌀 수 있을 것. 6g 2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권유진*

SK-II 에트오스피어 극광 프로텍트 SPF 50 미백과 자외선 차단.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브랜드의 대표 제품. 두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SK-II의 제품 이가 믿고 사용할 만하다. 유분 없이 깔끔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어 하루 종일 보습보습하게 유지된다. 공기처럼 가벼운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30g 8217천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배미진*

다들 자드르 바디 미스트 쿠드의 여성스러움을 좋아하는 보들 디자인에서 느낄 수 있듯이 관능적인 로즈와 함께 일렁일렁, 재스민의 향이 어우러져 원숙한 여인의 이마를 연상시킨다. 자드르 향수와 같은 우아한 곡선의 알파와 보들 향수로 그대로 유지 채 더욱 가벼워진 유리 보들로 디자인해 샤워 후 물기를 살짝 닦은 보드에 가볍게 뿌리면 은은할 은은한 플로럴 향이 유지된다. 100ml 6288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이지연*

나스 X 에르메스 스트레인지 플라워 컬렉션 하이아리핑 펜슬 매 시즌 유니크한 컬렉션 소개하는 영국의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Ermenegildo) 나스가 만났다. 영롱한 자개 빛깔에 라벤더 컬러를 살짝 더한 오묘한 색상으로, 아이리시나 차르도 사용해도 되고, 단독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위에 살짝 터치하면 묘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 1.4g 3298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지연*

타파니 오 드 파퓸 타파니의 1백28, 547만 원에 다이아몬드 커링에서 영감을 받은 귀족적인 형태의 보틀이 아름다운 향수. 뿌리는 순간 공간을 사로잡는 강렬한 향기는 아이리시와 플로럴 머스크의 풍성함을 느끼게 한다. 50ml 13298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마키몽 플라워 앤 블랜드 마키몽으로 착각할 만큼 정교한 디자인에 깜짝 놀랐다. 오목박열은 핑크는 크림 텍스처의 로즈 컬러 플라워가 내장된 케이스, 왼쪽 붉은 장미 컬러는 마키몽 모양의 쿠션 파파르. 가장 사랑스럽게 두 뺨을 핑크로 물들일 수 있는 이팩트 5만3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이지연*

산토리야 노벨라 카모미라 퍼듀에이트 로사 들란에 핀 지퍼처럼 깨끗하고 은은한 자연의 향을 담은 향초. 보틀이 없는 향초지만 예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인테리 효과도 똑똑히 볼 수 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최고 품질의 성분만 사용하고, 이를 중형화 손으로 직접 세간 골드 패턴트 로고기 특징이다. 300g 6283천원. 문의 02-546-1612.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레 베쥬 슈어 워시 클로우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 SPF 40/PA+++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했음에도 부담 없는 촉촉한 보습을 주지 않는 촉촉한 모이스처라이저. 텍스처가 가볍고 보습력이 높고 피부에 부담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도 만족스럽다. 라피드 피운데이션과 가볍게 덧칠해서 사용하면 더욱 실용적이다. 30ml 72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바이레도 비블리오테크 핸드크림 오래된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콘셉트의 감각적인 향으로, 달콤한 복숭아와 자두의 싱그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퓌 노트로 시작해 부드러운 비블리오테크 가족의 고품격과 향이 후미를 입도한다. 끈적임 없이 가볍고 촉촉한 벨도르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되어 향수가 부럽스런 사람에게도 제격이다. 30ml 425천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레 베쥬 샤넬은 피부 특을 균일하고 깨끗하게 연출해주는 레 베쥬를 출시한다. 은은한 색인 파니시가 장모뿔 윤기를 선사하며, 소프트 포카스 파우더가 빛을 반사해 매끄럽고 고운 피부를 완성해준다. 47지 컬러로 선택하는 레 베쥬로 건강하게 빛나는 메이크업을 연출해보자. 문의 080-332-2700

라프레리 메종 라프레리 오픈 하우스 라프레리는 지난 3월 8일, 청담동에 럭셔리 힐링 뷰티 공간 메종 라프레리 오픈 하우스를 진행했다. 브랜드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시그니처 물과 신제품 라프레리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를 비롯한 7가지 컬렉션을 엿볼 수 있었다. 제품 구매 금액에 따라 특별한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메종 라프레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의 080-511-6626

데코르테 AQ 화이트닝 라인 데코르테는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연출해줄 'AQ 화이트닝' 라인을 출시했다. 착색하고 어두운 인색을 완화해 밝아주는 에일선과 로션, 크림으로 구성되었으며, 편안한 텍스처가 피부 탄력과 에너지를 되찾아준다. 문의 080-568-3111

조르지오 아르마니 페이스 패브릭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무결점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는 페이스 패브릭을 출시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산뜻한 에어리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하루 종일 편안하고,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완성해준다. 문의 080-022-3332

BEAUTY

SHOWROOM

타사키

JEWEL&WATCH

블거리

반클리프 아펠

카르띠에

블거리 다바 피니시미 미닛 리피티드 블거리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2018 바젤월드에서 여성 주얼리 워치메이킹 1백 주년을 기념해 '다바 피니시미 미닛 리피티드'를 공개했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직경 37mm 사이즈의 18K 로즈 골드 케이스와 인텍스, 스물 세컨즈, 곡선미를 강조한 러그,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여성미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2056-0170

반클리프 아펠 리크 드 노아 컬렉션 전시 프레시 프리뷰 개최 반클리프 아펠은 지난 3월 30일, DDP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은 '리크 드 노아 컬렉션' 전시 프레시 프리뷰 행사를 개최했다. 브랜드의 CEO 니콜라 보스와 전시 공간 연출을 담당하는 코르테 월스과의 특별한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되며, 메

중의 장인 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시를 미리 엿볼 수 있었다. 전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문의 00798-852-16123

카르띠에 신토스 드 카르띠에 워치 카르띠에는 4월, 편안한 착용감과 탁월한 균형미가 돋보이는 '신토스 드 카르띠에 워치'를 출시한다. 우아한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특징인 케이스와 바젤 위 8개의 스크루 디테일을 갖추었으며, 여러 컬러와 소재로 제작한 스트랩은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 가능하다. 문의 1566-7277

타사키 아코야 진주 네크리스 타사키는 화사하고 우아한 광택이 돋보이는 '아코야 진주 네크리스'를 제안한다. 진주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낸 제품으로, 리본 디테일의 장금장자를 사용해 고급스럽고, 시공스러운 느낌을 부각한다. 문의 02-3440-5656

에르메스

로로피아나

파비아나 필리피

로로피아나 더 기프트 오브 킹스* 로로피아나는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 아트 바젤 기간 동안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가치를 대표하는 '더 기프트 오브 킹스*' 조형물을 선보였다. 진귀한 울을 소재로 자연에 대한 존중을 오롯이 담아내고자 했으며, 화상의 울이 패브릭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울이 순환하는 과정에 빚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6-0615

파비아나 필리피 2018 F/W 프레젠테이션 파비아나 필리피는 2018 F/W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현대적인 유행과 컬러, 볼륨감 있는 세이프가 돋보이는 실용적인 디자인의 메인 컬렉션과 My Private Lie라는 세련된 미니 홈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6960-0831

루이 비통 여행의 정취 캠페인 루이 비통은 광활한 자연 속 정경을 이루는 풍경을 배경으로 배우 엠마 스톤과 함께한 '여행의 정취 캠페인'을 공개했다. 메종의 장

루이 비통

브룩스 브라더스

FASHION